

# 영암군, 혁신주니어보드 '리버스 멘토링' 실시

### 세계적 브랜드 '구찌'서 실시 조직문화 개선 성공모델 임용 5년 이하 젊은 공무원 구성...기존 역할 뒤바뀌

영암군의 젊은 공직자들로 구성된 '혁신주니어보드'가 지난 12일 군청에서 '리버스 멘토링'을 진행했다.

임용 5년 이하 젊은 공무원의 감각과 열정으로 영암군정과 공직사회를 바꾸는 혁신주니어보드가, 이날 신입공직자-멘토, 간부공직자-멘티로 기존 역할을 뒤바꾼 리버스 멘토링을 한 것.

이 멘토링 방식은 세계적 브랜드 구찌(GUCCI)에서 실시해 알려진 조직문화 개선 성공모델로, 젊은 직원들의 생각으로 기업문화를 바꾸고 매출 증대까지 이뤄낸 혁신 정책으로 통한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 간부회의가 끝나자, 영암군 젊은 공직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혁신주니어보드 회의의 열었다.

간부회의와 같은 ▲영암생태로드 조성 방안 ▲국립공원 월출산 천황사원 개발사업 ▲한

옥·한복 등 한-스타일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 3개가 안건이었다.

업무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들은 젊은 공직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질의부터 사업 보완점까지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한 혁신주니어보드 단원은 "영암생태로드 중 목이 좋은 장소를 선정해 피크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른 단원은 "영암군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 테마파크와 맥주학교 등을 조성해 테마관광이 있는 천황사원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원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한옥과 한복 등의 멋을 알리는 홍보관을 상시 운영해 마케팅 도구로 삼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와 각 팀장들은 혁신주니어보드 단원들의 의견을 매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나이가 젊은 공직자들의 의견이 해당 사업을 완성도 높게 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리버스 멘토링에 참여한 임성호 단원은 "혁신주니어보드 단원들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회의하고 의견을 개진해 부담이 적었다."며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대

해 동료들과 몰입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영암군은 혁신주니어보드 워크숍을 포함해 다른 차지단체와 교류, 2차 리버스 멘토링 등으로 단원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 영광군 "식품 또는 상호명에 마약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영광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관련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식품 또는 상호명에 포함된 마약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여주기를 밝혔다.

전국적으로 마약관련 범죄의 증가와 특히 최근 5년 사이 20대 및 청소년 마약사범이 4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마약용어가 남용됨으로써 마약을 친숙하게 여기고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마약용어에 대한 노출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광군 위생팀은 주기적인 식품 및 상호명, 메뉴 등에 포함된 마약관련 용어의 현장 지도와 홍보를 통해 마약용어 사용을 자제하여 마약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군, 주크박스 뮤지컬 '씨니텐' 22일 공연 개최

무안군은 '2023년 문화공간방방곡곡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크박스 뮤지컬 '씨니텐' 공연을 22일(목) 저녁 7시 30분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뮤지컬 '씨니텐'은 연극 '텐-열간의 비밀'을 1990년대-2000년대 히트곡을 더해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다. 10일 안에 소개팅 남자에게 차여야만 하는 '셀리의 법칙' 주인공인 혜영(한미래 분)과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머피의 법칙' 주인공인 준호(지인규 분)의 로맨틱 코미디가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달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룹 쉐콘의 연가차 배경성이 멀티맨으로 출연해 공연이 한층 흥미롭다.

주크박스 뮤지컬에 걸맞게 듣기만 해도 어깨 들썩여지는 명곡으로 구성되어 콘서트장을 발발케 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국비 2억5천만원 확보

### 동부시장·종합수산시장 설계 용역 종료 7월부터 공사 시작

목포시가 대표 전통시장인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분전반, 차단기 및 배선기구 교체, 옥내배선공사 등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3월 실시한 2023년 제2차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에서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이 선정되어 국비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2개 시장은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중이며 7월 공사를 착공해, 9월경 준공 예정 계획으로 공사는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이외에도 동부·자유·청호·종합수산·중앙시장·항동·신중앙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 대해 전기, CCTV,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추진해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중앙식료시장과 수산물 집산지인 항동시장은 노후화된 지붕을 정비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래된 시장일수록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전선 정비가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전통시장의 전기시설을 정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함평군4-H연합회, 공동과제포 모내기 행사 추진

함평군4-H연합회(회장 김승순)가 영농철을 맞아 지난 13일 공동과제포에서 모내기를 실시했다.

공동과제포란 영농 실습을 위해 4-H회원들이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말하며,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면 월산리에 위치한 규모 2,460㎡ 공동과제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함평군4-H연합회 회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함께 모여 직접 모내기 작업을 하고 비료를 살포하며 농업 현장의 생생한 영농 노하우를 습득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신안군 교육정책 특별보좌관, 임자고등학교 순회특강

### 자은도 출신 이창균 특별보좌관 "섬지역에서도 명문대를 갈 수 있다"



신안군은 지난 5월 초 신안 자은도 출신 현 나주 영산고 이창균 교장을 신안군 교육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이후 임자고등학교에서 순회특강(2차)을 실시했다.

이창균 신안군 교육정책 특별보좌관은 지난 12일 임자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입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농어촌특별전형 제도를 강의하며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지역에서도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안군의 인재상에 너지 햇빛연금 등의 정책과 결합하여 인구소멸을 막는 것 외에도 선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지방자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